

물로써 이로움을 얻은 땅 풍요로운 이천 (利川)

강 육 / 자유기고가

경기도 동남단에 자리 잡은 이천시는 속리산에서 뿔어 나온 한남정맥(漢南正脈)이 오음산을 기점으로 좌우로 날개를 퍼면서 시의 서쪽과 북쪽 외곽을 감싸 안았다. 남한강 지류인 복하천, 양화천, 청미천이 동으로 흐르면서 평야가 발달하여 전국에서도 제일 유명한 '이천 쌀'의 주생산지를 이룬다.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서로 교차하는 이천시는 사통팔달한 교통의 요지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촌, 공업지역이 서로 공존하면서 현대 속에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또, 알카리성 천연온천, 첨단산업·전원·관광·레저도시로의 조화를 이룬 흔치않은 면모도 가지고 있다.

예로부터 쌀이라면 이천의 자재를 첫손가락에 꼽는다. 자채쌀은 이천과 여주의 일부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특수 품종으로 특히 안흥리 방죽 앞으로 펼쳐진 넓은 구만리 들이 자채의 주생산지였다. 이 쌀은 특히 옛날



부터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미로서 유명했다. 그러나 파종과 김매기 등 재배 방법이 까다롭고 수확량이 신통치 않아 사라지게 되었다.

'이천(利川)'이라는 이름은 물로써 이로움을 얻은 고장이라고 하여 고려 태조가 지어준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땅이 넓고 기름져서 백성들이 많고 부유하다."고 한 걸 보면 오래전부터 살기 좋은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좋은 땅과 좋은 물은 이 고장의 지리적 특성이요, 지역 산업의 태반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 예로 온천이 유명하고 현대전자, OB맥주, 진로 등 이름난 기업들이 몰려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어제의 이천이 쌀의 고장으로서는 이름이 높았다면 오늘의 이천군은 도자기의 고장으로서는 더 이름이 높다. 흙과 불과 물이 서로 어울려 빚어내는 조화란 도자기만이 갖는 아름다움일 것이다. 이천이 도자기의 명산



지로 이름이 알려지게 된 데에는 도자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흙이나 그것을 굽기 위한 땀나무를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외적인 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반부터 도자기 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하여 신둔면 수광리와 사음동 일대에 300개소가 넘는 공방들이 문을 열고 있다. 줄지어 늘어선 도자기 상가들과 함께 도자박물관과 개인 전시장들도 볼거리라 하겠다. 도자기 제품들은 가정에서 쓰이는 찻잔이나 식기류를 비롯한 생활용품에서 관상용품, 악세사리 등 매우 폭넓고, 관광객들이 직접 손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도예교실도 있다.

설봉공원 엑스포단지과 신둔도예촌 일원에서 매년 펼쳐지는 '이천도자기축제'는 금년에 제19회를 맞으며 '세계도자비엔날레'와 축제를 병행하여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천년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전통도자기를 비롯하여 세계도자비엔날레 공모를 통해 출품된 세계 유명 작가의 현대도자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도자 문화를 선보인다.

이천의 진산(鎭山)인 설봉산(雪峰山) 주봉기슭에 자리 잡은 영월암은 이천의 대표적인 고찰이다. 조선 영조 36년(1760)에 편찬한 『여지도서』와 1899년에 나온 『이천군읍지』에는 북악사라 하였으나 그 이후는 영월암이라 불려오고 있으며, 현재는 조계종에

소속되어 있다.

『영월암 중건기』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신라 제 30대 문무왕 때 해동화엄종의 개조인 의상조사가 창건하였다 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문헌이나 금석문 등 신빙자료가 없어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경내에는 고려 중기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석조광배(石造光背) 및 연화좌대(蓮花座臺), 그리고 석조 3층 석탑 등이 유서 깊은 고찰임을 입증해 주고 있다.

현재의 영월암은 대웅전과 부속건물 3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웅전 건물은 1949년 청암 김명칠 스님이 이천향교 명륜당 앞에 있다 퇴락된 풍영루 체목(體木)으로 옮겨짓다가 6.25동란의 발발로 중단된 것을 1953년 11월 당시의 주지 김해용 스님이 준공하였다. 3층 석탑 석조광배 및 8각 연화좌대 등의 유물들은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오다가 1981년 주지 송정해 스님이 사계의 고증을 받아 수습 복원해 놓았으며, 1989년 8월 14일 소실된 서변 요사채를 1991년 여름에 법정 강종래 스님이 전래한옥으로 복원하여 명실공히 전통사찰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절 앞에 있는 일근이주(一根二柱)의 이름드리 은행나무는 수령이 약 600여년을 헤아린다. 이 은행나무에는 고려 말의 고승 나옹대사가 이 절에 머물 때 꽂아놓은 지팡이가 자란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한편 영월암 대웅전 뒤로 난 계단을 따라 약 30m 정도 오르면 보물 제 822호인 영월암 마애여래입상이 있다. 높이가 약 10m, 두께 4m 가량의 동남간을 향한 바위 면에 선각되어 있는 이 마애불은 높이가 9.6m 어께 폭이 3m가량으로 우선 규모면에서는 관내에서 제일 큰 불상이다.

머리는 승려 모양의 맨머리여서 지장보살의 상으로 여겨지며, 얼굴은 둥근 형태의 살이 찢 편이며, 입이 커서 투박한 느낌을 준다.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고, 왼손은 가사자락을 움켜쥔 모습이다. 왼손으로부터 늘어진 가사의 주름이 무릎 아래 부분까지 늘어져 있고, 오른손은 가슴 앞에 올려 손바닥을 펴서 밖을 향하게 한 시무외인(施無畏印)을 하고 있다. 지그시 눈을 감고 웃음을 껍 깨문 듯한 후덕한 인상이 인간적인 미감을 물씬 풍기고 있는 것이 이 불상의 매력이다.

풍년을 비는 '이천 거북놀이'의 유래는 신라 30대 문무왕 때부터 시작되었다고는 하나 확실치 않다. 거북놀이는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처음에는 거북을 신성시하는 토속적인 무속신앙에서 파생되어 각 마을로 보급되었고, 세월이 가면서 점차 제의적인 성격이 강한 부락공동의 집단놀이로 변화하면서 전래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러한 흔적들은 이천시를 비롯한 한수 이남의 경기지방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놀이는 8월 한가위 날 밤 휘영청 한 달 빛 아래서 흥겹게 마을을 돌며 판을 벌리는 민속놀이이다. '걸립'이나 '지신밟기'와 비슷하지만 수수 앞으로 엮은 거북이와 질라 아비를 앞세우는 방식이 특이하다. 이는 경기 지방의 무속이 지닌 곳의 방식과 농악이 한데 어울려진 집단놀이로서, 그 목적은 단순한 여흥이 아니라 부락의 안녕과 한해의 풍년을 비는 성격을 가진다. 놀이를 통해 거둔 전곡(錢穀)은 마을의 공익사업을 위해 쓰였다. 놀이과정은 길놀이, 장승굿, 우물굿, 마을판굿, 문굿, 터주굿, 조왕굿, 대청굿, 마당놀이 등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집단 연희를 통해 우리 민족은 스스로 생활 속에 짜든 마음을 풍요롭게 가꾸어 왔으며, 인정미 넘치는 촌락공동체를 이루어 왔다.

복숭아도 이천에서 내세우는 또 하나의 자랑거리다. 미백도와 황도는 모두 이천 장호원 지역에서 탄생한 신품종으로 복숭아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다.

미백도는 1·4 후퇴 때 대전에서 피난살이를 했던 이황리 사람 이차천씨가 미국산 복숭아나무 가지를 가져와 접목한 묘목들 중에서 돌연변이종으로 탄생하였다. 열매가 유난히 크고, 과일 색깔이 유백색이고 수려한 것이 특징이다. 이후 미백도는 전국에 확산 보급되어 생식용 과일로 소비시장을 석권하였다.



황도는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생산되는 늦복숭아로 치밀하면서도 부드러운 육질, 높은 당도로 이제까지의 어느 과실의 맛보다도 특이한 맛이 일품이다. 진암리 최상룡 씨가 1963년 일본에서 들여온 두 그루의 묘목 중 하나가 돌연변이로 탄생한 것이 그 시작이다. 품질이 뛰어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신품종으로 인정받아 수출도 하고 있다.

장호원을 청미천 고수부지(둔치)에서 매년 치러지는 ‘이천 장호원 복숭아 축제’는 올해가 벌써 아홉 번째이다. 이천 농부들의 넉넉한 인심과 이슬향이 풍기는 장호원 복숭아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이다.

